

한-중 문화갈등의 발생 양상 연구*

임대근**

목 차

1. 머리말
2. 한-중 문화갈등의 시기별 양상
3. 한-중 문화갈등의 특징과 의미
4. 한-중 문화갈등의 원인과 접근법
5. 한-중 문화갈등의 긍정적 신호들
6. 맺음말: 몇 가지 제언

국문초록

한국과 중국 사이에는 수교 이후 30년 동안 다양한 문화갈등 사례가 발생했다. 한-중 문화갈등은 상호 탐색기(1992~2002), 간헐적 발생기(2002~2016), 냉각기(2016~2020)를 거쳐 빈발기(2020~현재)에 이르고 있다. 동북공정(2002)과 한한령(2016)은 문화갈등을 구성하는 두 개의 변곡점이다. 한-중 문화갈등은 양국 정부와 민간이 원인 제공 주체로 기능하면서 역사 및 국적문화의 문제를 중심으로 발생한다. 최근에는 대중문화콘텐츠 자체가 갈등의 진앙으로 작동하고 있다. 이러한 문화갈등은 민족주의 이데올로기와 국제관계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강화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접근 또한 역사적, 구조적, 경제적, 국제관계적, 문화콘텐츠적 층위에서 수행될 필요가 있다. 문화갈등에도 불구하고 일부 '긍정적' 신호가 있는 점도 사실이나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면서 건강한 한-중 관계를 만들어나가기 위해서는 제도적,

* 이 논문은 2021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0S1A6A3A04064633). 이 연구는 2021학년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내 학술연구비의 지원에 의해 이루어진 것임.

** 한국외국어대학교 융합인재학부 교수

국제적, 교육적, 사회적,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

키워드: 한중수교, 문화갈등, 동북공정, 한한령, 한류

1. 머리말

한국과 중국은 올해로 수교 30주년을 맞는다. 유사 이래 양국 관계는 지리적 근접성에 따라 긴밀한 교류를 축적해 왔다. 중국은 한자와 유가를 중심으로 아시아 지역의 전통문화 형성을 주도했다. 한국 또한 한자문화권, 유가문화권의 일원으로 간주했던 바, 중국과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독창적 문화를 창조해왔다. 수천 년에 이르는 양국의 역사적 상호작용은 정면과 부면의 결과를 모두 초래했다. 한국에 있어 중국은 문화의 원천이기도 했으나 억압과 침략의 현실이기도 했다.

조선과 청 왕조의 멸망이 이어지고 일본 제국에 의해 식민지와 반식민지 경험을 겪은 이후, 한반도의 분단으로 인해 한국과 중국의 관계는 단절되었다. 중국의 정통성을 자임하는 중화민국(대만)과의 관계가 계속돼왔으나 세계사에 있어 대륙 중국의 부상은 거부할 수 없는 흐름이었다. 1992년 한-중 수교는 근대 국가 수립 이후 양국 관계의 공식적 복원을 천명한 사건이었다. 한국과 중국은 근대국가의 관계를 수립한 이래 30년, 한 세대의 시간을 공유해왔다.

한국과 중국은 서로 다른 체제 속에서 역사적 관계를 복원함과 동시에, 이를 동시대화하고, 나아가 건강한 미래를 창조해야 하는 삼중의 과제를 떠안게 되었다. 한-중 관계는 1992년 공식적으로 이른바 ‘선린우호 협력관계’에서 출발하여 2008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까지 격상되었다. 양국 관계는 지난 30년 동안 경제와 안보 분야의 필요성에 의해 긍정적인 성과를 도출해왔다. 정부 주도의 문화외교와 민간 중심의 문화교류 또한 적지 않은 성과를 축적해 왔다.

그러나 양국 문화의 상호작용이라는 측면을 살펴보면, 관계에 대한 수사가

한-중관계는 문화교류와 갈등의 층위에서 크게 네 시기로 나뉘어 볼 수 있다. 1992년 수교 이후 2002년까지 초기 10년은 상호탐색의 시기였다. 1949년 사회주의 중국 수립 이후 40여 년 동안 서로 다른 체제를 구축해온 양국은 공식 외교 관계의 수립에도 불구하고 상호탐색과 이를 통한 인식 전환의 시간이 필요했다. 한국의 적성국이었던 ‘중공’은 중화민국(대만)을 대신하여 새로운 ‘중국’으로 호명되어야 했으며, 중국은 이른바 ‘항미원조’(抗美援朝) 전쟁의 당사자였던 ‘남조선’을 ‘한국’으로 조정하는 과정을 거쳐야 했다. 수교 초기 10년은 양국의 역사적 관계를 복원하기 위한 시기였다. 이 시기 중국에 진출하기 시작한 한류는 그러한 관계 복원의 상징으로서 문화교류 현상이었다.

2002년 ‘동북공정’(東北工程)은 한-중 문화갈등의 첫 번째 변곡점이었다. 중국 당국이 오늘날 동북 지역에 포진해 있던 고구려, 발해 등의 고대사를 자국 역사로 편입하려는 공식 계획은 한국인에게 강력한 반발을 불러왔다. 이후 양국 문화갈등은 2~3년을 주기로 간헐적으로 발생했다.

2007년 강릉 단오제 유네스코 등재 논란, 창춘(長春) 아시안게임 한국 여자 쇼트트랙 선수팀 “백두산은 우리땅” 퍼포먼스, 2008년 공자 한국인설 논란, 베이징올림픽 성화봉송 폭력 사태, 한국 SBS 베이징올림픽 개막식 사전 보도 사건, 2010년 첨단정보기기 한글 자판 국제 표준 논란, 2011년 아리랑 중국 국가무형문화유산 등재 논란,²⁾ 2014년 온돌 한국 무형문화재 등재 논란, 2016년 트와이스 멤버 쯔위의 청천백일기 사건 등이 이어졌다.

2016년 ‘한한령’(限韓令)은 한-중 문화갈등의 두 번째 변곡점이었다. 한국 정부의 사드(THAAD: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배치에 대한 보복으로 중국은 한한령, 즉 한국 대중문화의 중국 유입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후 2020년까지 약 4년 동안 양국 문화교류는 냉각기를 거쳤다. 냉각기에는 한편으로 한한령이 지속되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한한령이 곧 해제되리라는 기대가 이어지던 시기였다. 상호 교류와 갈등이 모두 정지된 시기이기도 했

2) 2002년부터 2011년까지 발생한 사례에 대해서는 이전 연구에서 다룬 바 있다. 임대근, 위의 글 참조.

다. 한한령이 해제되고 교류가 재개, 복원되리라는 기대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판단에 이른 시점에 양국 문화갈등은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었다.

2020년 이효리의 “마오 어때요?” 사건은 한-중 문화갈등의 빈발기를 이끌어내는 도화선으로 작동했다. 이후 2020년 하반기부터 BTS 뱀플리트상 수상 소감 논란, 사이닝니키 게임 한복 국적 논란, 중국 유튜브 콘텐츠의 김치 종주국 논란, 2021년 중국 TV드라마 <겨우 서른>(三十而已) 여주인공 ‘강소영’ 이름 논란, SBS 드라마 <조선구마사> 역사 왜곡 논란, 강원도 ‘한중문화타운’ 사업 논란, 중국영화 <금강천> 한국 수입 및 개봉 논란, 2022년 베이징동계 올림픽 개막식 한복 논란까지 이어지고 있다. 특히 2020년 이후부터는 한-중 문화갈등이 빈발하면서 한국 내 반중감정과 중국 내 반한감정을 고조시키고 있다.

3. 한-중 문화갈등의 특징과 의미

한-중 문화갈등은 때로는 한국이 요인을 제공하기도 하고 때로는 중국이 요인을 제공하기도 한다. 또한, 때로는 한국과 중국 정부가 계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갈등 발생의 원인을 제공하기도 하고 때로는 민간에서 일어나는 돌발 상황이 갈등으로 비화하기도 한다. 수교 이후 한-중 문화갈등 사례를 이전의 연구에서 시도한 바와 같이³⁾ 갈등 발생 요인 제공의 주체에 따라 구분하면 [표1]과 같다.

이 정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이 드러난다.

첫째, 한-중 문화갈등의 원인을 제공하는 주체는 양국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정부), 민간 기관이나 기업, 집단 등을 두루 지목할 수 있다. 양국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들은 사전에 계획된 경우들인데, 이들이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국에 대한 적

3) 임태근, 위의 글.

절한 설명 없이 관련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민간에서 일어나는 문화유산에 대한 갈등은 정부가 다루고 있는 문제들의 연장선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강릉 단오제, 온돌, 아리랑 등으로 이어지는 무형문화유산의 보호와 전승을 위한 양국의 '독자적'인 노력이 양국 국민의 반감을 불러일으키면서 결국 공자, 한글, 한복, 김치 등의 문제로 연쇄 작용을 일으키면서 반중 정서, 반한 정서를 확산하는 상황이다.

[표1] 한-중 문화갈등의 원인 제공 주체 구분

갈등 원인 주체	한국	중국
관방	강릉 단오제 유네스코 등재(2007) 온돌 한국 국가무형문화재 등재(2014) 강원도 '한중문화타운' 사업 논란(2021)	동북공정(2002) 아리랑 중국 국가무형문화유산 등재(2011) 한한령(2016) 베이징동계올림픽 개막식 한복 논란(2022)
민간	창춘 아시안게임 퍼포먼스(2007) SBS 베이징올림픽 개막식 사전 보도(2008) 찌위 '청천백일기' 사건(2016) 이효리 "마오 어때요?" 사건(2020) BTS 뱀플리트상 수상 소감(2020) <겨우 서른> '강소영' 이름 논란(2021) <조선구마사> 역사 왜곡 논란(2021)	공자 한국인설(2008) 베이징올림픽 성화봉송 사태(2008) 첨단정보기기 한글자판 표준 논란(2010) 사이닝니키 게임 한복 국적 논란(2020) 김치 중주국 논쟁(2020) <금강천> 한국 개봉 논란(2021)

둘째, 한-중 문화갈등의 소재는 대체로 역사 문제나 국적문화(national culture)에 관한 문제가 주종을 이룬다. 역사 문제는 고대사 영역과 현대사 영역의 사례가 복합돼 있다. 고대사와 관련된 문제는 중국이 고구려 등 한국의 고대사를 자국 역사로 편입한 '동북공정'이 대표적이다. 최근에는 현대사와 관련한 문제도 갈등의 소재로 등장하고 있는데, 예컨대 이효리의 "마오 어때요?" 사건은 중국의 현대 지도자인 마오쩌둥을 비하했다는 논란에 휘말렸고, BTS의 뱀플리트상 수상 소감은 한국전쟁을 바라보는 양국의 판이한 시각으

로 인해 촉발됐다. 특히 한국전쟁 문제는 한-중 양국 사이에 해결 불가능한 인식을 드러내는 사안으로 보인다. 2021년 한국에서 벌어진 중국영화 <금강천>(金剛川; 한국제목 '1953 금성대전투')의 개봉 및 상영에 관한 한국 대중의 반발은 이런 상황을 잘 보여준다. 국적문화와 관련한 갈등은 주로 특정한 문화 현상의 기원 또는 종주국이 어디인가를 두고 벌인 논쟁이다. 한국의 강릉 단오제 유네스코 등재, 온돌 한국 국가무형문화재 등재, 중국의 아리랑 국가무형문화유산 등재, 공자 한국인설, 첨단정보기기 한글 자판 표준 논란, 사이닝니키 게임 한복 국적 논란, 김치 종주국 논쟁 등은 모두 특정한 문화유산의 국적을 문제 삼으면서 발생한 갈등의 사례들이다.

셋째, 한-중 문화갈등에 있어 '동북공정'과 '한한령'은 두 개의 큰 변곡점을 형성한다. 동북공정은 한-중 수교 이후 양국 관계가 밀월기 또는 상호 탐색기를 끝내고 본격적인 문화갈등의 시기를 열게 했다. 한국인과 한국 사회에 대한 동북공정의 영향은 매우 심각한 효과를 유발했다. 이로써 한국인은 이후에 발생하는 다양한 문화갈등을 정확한 사실과 관계없이 '××공정'이라고 명명하는 관습을 갖게 되었다. '한글공정'(첨단정보기기 한글자판 표준 논란), '한복공정'(사이닝니키 게임 한복 국적 논란) '김치공정'(김치 종주국 논쟁) 등과 이를 아우르는 '문화공정'이라는 명명이 등장했다. 그러나 주지하는 바와 같이 중국어 '공정'(工程)은 우리말에 '사업'(project)에 해당하는 개념으로 주로 공공기관이 대규모 인력이나 물자를 투입하여 수행하는 정책 내용을 의미한다. 따라서 '공정'이란 중국의 공산당 또는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주로 수행하는 계획적인 사업인데 이를 민간에서 발생하는 돌발적인 이슈를 명명하는데에도 활용하고 있는 상황은 합리적이지 않다. 이는 결국 한국인에게 있어 동북공정이 중국에 대하여 얼마나 큰 정서적 반감을 불러오게 된 사건인지를 잘 보여준다.

넷째, 한-중 문화갈등의 최근 경향은 대중문화콘텐츠 관련성이 점차 높아지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앞서 말한 대로 2016년 한한령이 발동된 이후 한국 내부에서는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해서 커져 오고 있었으나

2020년 이효리의 “마오 어때요?” 사건을 계기로 잠복해 있던 중국에 대한 반감이 폭발하게 되었다. 뒤이어 BTS, 게임, 유튜브, TV드라마, 영화 등으로 이어지는 문화콘텐츠가 한-중 문화갈등의 진앙지 역할을 하게 되었다. 사실 한-중 문화갈등이 간헐적으로 발생하던 2000년대만 하더라도 갈등의 요인이 주로 역사 문제, 문화유산의 국적성 논란에 기인하고 있었고, 문화콘텐츠는 오히려 이를 완충하는 역할을 하기도 했다. 예컨대 동북공정 사태가 발생한 이후 2005년 한국 TV드라마 <대장금>의 중국 방영은 한국에 대한 중국인의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⁴⁾ 그러나 최근의 한-중 문화갈등은 이효리 “마오 어때요?” 사건, 샤이닝니키 게임 한복 국적 논란, 김치 종주국 논쟁, <겨우 서른> 여주인공 ‘강소영’ 이름 논란, SBS <조선구마사> 역사 왜곡 논란, 중국영화 <금강천> 한국 수입 상영 등 문화콘텐츠 자체가 갈등의 원인으로 작동하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다시 말하면 문화콘텐츠는 2000년대에는 한-중 문화갈등의 외부에서 완충작용을 했으나, 이제는 갈등 구조의 내부에서 인과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다섯째, 한-중 문화갈등을 한국과 중국 내부에서 내치를 위한 도구로 활용하는 경향이 있다. 중국의 한한령 발동은 대표적인 사례다. 물론 특정 국가가 타국의 문화 유입을 정책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자율적인 조치다. 예컨대 우리나라도 정부 수립 이후 1998년까지 일본의 대중문화 수입을 금지했다.⁵⁾ 한한령과 같은 중국의 한국 대중문화 유입 금지 조치는 크게는 자국 문화산업의 보호와 국내 이데올로기 통제, 한국 대중의 여론 형성 유도 등의 목적을 가지고 있으나, 최근 시진핑 정부의 강력한 전방위적 통제 중심의 정책 동향을 볼 때, 자국 내부의 이데올로기 통제가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보인다. 중국은 내부 이데올로기 통제를 위해 한-중 문화갈등을 활용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

4) 이에 관해서는 다음의 연구를 참조. 김주연·안경모, 「중국에서의 한류콘텐츠 선호가 한국상품 구매, 한국방문 및 한글 학습의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2권 5호, 2012; 황낙건, 「중국 내 K-DRAMA 특성이 한류 문화콘텐츠 만족과 국가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제8권 1호, 2014. 참조
5) 정재정, 『주제와 쟁점으로 읽는 20세기 한일관계사』, 역사비평사, 2014, 273-289쪽.

다. 이런 경향은 중국 내부에서 강력하게 부상하고 있는 문화민족주의, 팬덤애국주의 등과 결합하면서 하향(top-down)-상향(bottom-up) 구조가 호응하고 있는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 한국 내부에서도 민족주의를 강조하는 입장은 중국과의 문화갈등을 기회로 삼아 문화민족주의를 강화하려는 경향을 보이는 것은 물론이다.

여섯째, 한-중 문화갈등은 문화교류나 충돌과 같은 ‘문화’ 내부의 문제로 인해서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한반도를 둘러싼 다양한 국제관계는 한국인의 중국 인식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예컨대 2018년 이후 본격화한 중-미 무역분쟁 등은 양국 대중의 정서를 자극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갈등사안은 다양한 문화적 환경과 연관되면서 발생하고 있는데, 특히 한류의 중국 진출과 성행, 한국 내 중국 관련 영화의 상영을 통한 ‘중국인의 타자화’ 현상 등과도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그림1]에 예시한 바와 같이 한국 사회에서는 2010년대 이후 중국인 또는 조선족 캐릭터를 타자화하는 영화가 지속해서 상영되었다. <황해>(2010), <차이나타운>(2014), <명량>(2014), <남한산성>(2017) 등은 대표적인 사례다.

4. 한-중 문화갈등의 원인과 접근법

한-중 문화갈등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고 있다. 전체적으로는 중국 내부의 원인, 한국 내부의 원인, 국제정세의 원인 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중국 내부의 원인은 앞서 살펴본 대로 이데올로기 강화 정책 방침 고수, 자국민 일원화 전략에 따른 국가주의, 문화민족주의, 팬덤애국주의의 부상 등을 지목할 수 있다. 한국 내부의 원인으로는 한류 등에 따른 문화심리 만족감의 장애 요소 및 자극 요소에 대한 반응, 한-중 관계에 대한 역사적 기억의 복원에 대한 콘텐츠(예컨대 <명량>, <남한산성> 등)의 역할 등을 거론할 수 있다. 국제정세 원인으로는 중-미 대결 구도(‘사드’ 배치, 중-미 무역분쟁 등)

이후 반중감정의 고조 등을 살펴볼 수 있다.

한-중 문화갈등은 역사, 문화, 국제관계, 콘텐츠 등이 원인이 되어 작동한다. 그 결과는 한-중 사이의 경제 효과, 국제관계 효과, 문화교류 효과, 상호인식 효과 등으로 파급된다.

따라서 한-중 문화갈등을 단순히 문화 내부의 문제로 환원하거나 한-중 당사자만의 문제로 가두게 되면 이에 대한 접근과 대응 방안을 합리적으로 제시하기 어렵다. 한-중 문화갈등은 다양한 문제가 복합적인 층위에서 형성하고 있는 현상이다. 즉 이에 대한 접근 방법 또한 여러 층위에서 수행될 필요가 있다.

첫째, 역사적 측면에서 접근이 필요하다. 특히 1992년 이후 한-중 관계를 둘러싼 주요 사건들과의 연관성에 대하여 연구 및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물론 1992년 한-중수교 이전부터 존재해 왔던, 고대로부터 근대로 이어진 역사 속에서 한국과 중국의 관계에 대한 인식의 문제도 중요한 부분이다. 한사군의 설치, 고구려와 수의 전쟁, 나-당 연합과 삼국통일, 몽골의 고려 침입, 조선 건국과 국호 결정, 임진왜란, 병자호란, 임오군란과 청군(위안스카이)의 개입, 청일전쟁, 중국에서의 독립운동, 한국전쟁 등에 이르는 일련의 역사적 사건은 한국인의 중국 인식에 적잖은 영향을 미치고 있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둘째, 구조적 측면에서 접근이 필요하다. 한-중 문화갈등의 발생과 확산, 잠복의 구조를 파악하면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이전의 연구를 통해 제시한 바 있는 도해⁶⁾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구조를 통해 볼 때, 한-중 문화갈등이 발생하고 순환하는 과정에서 유명인사와 언론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특히 전통미디어(legacy media)든 뉴미디어든 막론하고 갈등의 유발에 영향을 미치고, 또 갈등이 악화하는 경우에는 이를 다시 조정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따라서 한-중 문화갈등은 구조적인 접근을 통한 해결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셋째, 경제적 측면에서 접근이 필요하다. 한국과 중국 양국의 이익 지점은

6) 임태근, 위의 글, 88쪽.

여전히 경제 영역에서 구성되고 있다. 한-중 문화갈등은 때때로 경제와 무역 분야와는 전혀 독립적인 변수로 작동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조사 연구가 필요하다. 상식적인 추론으로는 한-중 문화갈등은 경제 무역 분야에 영향을 미칠만한 충분한 개연성을 가지고 있다. 문화콘텐츠 상품은 이에 대한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영역이며, 관광 상품, 화장품 등의 유사문화 상품 또한 타격이 불가피한 영역이다. 따라서 한-중 문화갈등이 경제적 측면에 유발하는 효과가 어떠한지에 대한 분석과 전망이 필요하다.

넷째, 국제관계적 측면에서 접근이 필요하다. 한-중 관계는 표층으로만 보면 한국과 중국의 양자 관계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 심층은 다소 복잡한 다자 관계로 구성된다. 한국의 상대국인 중국은 대륙 중국과 홍콩, 혹은 대만을 포괄하는 서로 다른 정치 체제를 보유하고 있고, 한국은 북한이라는 변수를 가지고 있다. 한국에게는 미국과 일본이라는 동맹 관계의 층위가 존재하고 중국에게는 북한과 러시아라는 동맹 관계의 층위가 존재한다. 한-중 문화갈등은 한중-관계, 한-일 관계, 중-미관계, 중-일 관계, 미-대만 관계, 한-대만 관계, 남북관계 등의 다양한 국제관계의 흐름 속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문화콘텐츠 측면에서 접근이 필요하다. 앞서 살펴본 대로, 문화콘텐츠는 2000년대 한-중 문화갈등을 완충하는 역할을 했지만, 2010년대 이후부터는 문화콘텐츠가 결과적으로 양국에 반감의 정서를 유발하는 도구로 활용되었고, 2020년대 이후에는 문화콘텐츠 자체가 갈등의 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2010년대 한국의 문화콘텐츠 가운데 반중 정서를 고양하게 된 계기로서 <황해>, <차이나타운>, <명량>, <남한산성> 등이 미친 효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최근 중국이 <금강천>, <장진호>(長津湖) 등 한국전쟁을 중심으로 한 일련의 콘텐츠를 만들면서 한국 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점도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5. 한-중 문화갈등의 '긍정적' 신호들

한-중 문화갈등은 양국 관계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 특히 민간에서 발생하는 여론과 정서의 문제로 비화하고 있어서 이를 내버려 둘 경우, 상호인식과 태도에 있어 장기적으로 지속하는 문제로 고착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한-중 문화갈등이 빈발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긍정적 신호들은 존재한다. 우리는 이와 같은 긍정적 신호를 통해 해법을 모색할 수 있는 노력을 거듭할 필요가 있다.

첫째, 중국 내부에 한국 문화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상존한다는 점이다. 지난 2016년 한한령이 발동된 시점을 전후하여 한국의 대중국 문화콘텐츠 수출 및 수입 규모를 살펴보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표2]7)를 보면 2015년 대비 2018년을 비교하여 살펴봤을 때, 한국의 대중국 문화콘텐츠 수출액은 2배 이상 증가했다. 또한, 한국 문화콘텐츠의 국가별 수출 비중 또한 26.6%에서 36.8%로 증가했다. 다만, 출판과 영화, 방송 등과 같은 이데올로기 집약형 콘텐츠는 증가 폭이 작거나 대폭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에 대한 대응은 당연히 필요한 것이지만, 전체적으로 중국 내 한국의 문화콘텐츠 수요가 여전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 신호라 할 수 있다.

둘째, 한국 내부에도 중국 문화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상존한다. 예를 들어 최근 중국의 웹소설 시장은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데, 국내에서 이에 대한 인기도 급상승하고 있다. “구체적인 예를 들면 2019년 12월 현재 ‘네이버 시리즈’의 월간 인기 순위 1~20위 중에는 『폐후의 귀환』(重生之將門毒后) 3위, 『천재소독비』(糞汐傳) 6위, 『서녀명란전』(知否知否應是綠肥紅瘦) 15위, 『천월연가』(乘鸞) 17위 등 4편의 중국 웹소설이 포함되어 있다. 아직 한국어로 번역된 중국 웹소설의 수가 그다지 많지 않다는 현실을 고려하면 한국 내에서 중국 웹소설은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⁸⁾ 웹소설

7) 문화체육관광부, 「2016 콘텐츠산업 통계조사」, 한국콘텐츠진흥원, 2016; 「2019 콘텐츠산업 통계조사」, 한국콘텐츠진흥원, 2019의 해당 부분을 재구성.

의 주요 독자는 청년 세대인 것으로 보이는데, 동시대의 중국 웹소설이 20세기 중반 이후의 중국 무협소설, 홍콩영화 등의 역할을 유사하게 수행하면서 중국이라는 국가 이미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개연성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2] 한국의 대중국 문화콘텐츠 수출/수입액

단위: 천 달러

2015년			2018년		
수출액	구분	수입액	수출액	구분	수입액
34,888	출판	47,504	17,765	출판	59,351
1,492	만화	111	2,461	만화	35
89,761	음악	129	111,962	음악	144
1,057,119	게임	51,852	2,981,534	게임	72,850
11,221	영화	3,387	17,164	영화	3,818
2,162	애니메이션	12	7,629	애니메이션	75
63,702	방송	2,293	60,540	방송	2,956
118,563	캐릭터	72,175	158,423	캐릭터	70,309
46,878	지식정보	-	56,505	지식정보	41
24,921	콘텐츠솔루션	-	27,783	콘텐츠솔루션	15
1,450,707	합계	177,463	3,441,766	합계	209,592
26.6%	비중	20.8%	36.8%	비중	22.8%

셋째, 한국 내부의 추상적 국제화 또는 글로벌라이제이션의 실체를 노출하는 측면도 있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국제화,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는 구호를 지속해서 강조해 왔다. 그러나 가장 가까운 이웃인 중국과의 문제에 있어서조차 갈등이 지속하면서 정서적 반감으로 대응하고 있는 상황은 우리 사회의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는 구호가 명실상부하지 못하다는 반증을 드러낸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문제를 계기로 우리 사회가 추구하는 국제화, 글로벌라이

8) 전기정, 「한중 웹소설의 특징 및 시장 현황 비교 분석」, 『열린정신인문학연구』, 원광대 인문학연구소, 2020, 61쪽.

제이션의 구체적인 의미와 지향이 어디에 있는지를 충분히 논의해야 하는 과제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신호로 작동할 수 있다.

넷째, 한국 내부에서 '한류'에 대한 문화심리가 과도한 자존감으로 작동하는 경향이 있다. 한국 사회는 역사적으로 '수출 입국'을 표상으로 하는 경제성장과, 국제 스포츠대회에서의 수상을 통한 체육 분야의 성과를 통해 전 국민의 민족주의적 심리를 자극하고 이를 통해 국가적 정체성을 이식하는 작업을 이어왔다. 최근 이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의 'K-방역'이라는 용어까지 이어지고 있다. 한류는 한국민의 문화심리를 지탱함으로써 국가 정체성과 국민 정체성을 형성하는 도구로 활용되어왔는데, 그 과정에서 과도한 자존감이 작동하는 경향이 없지 않았으나, 한-중 문화갈등이 지속하고 특히 중국의 한한령이 발동하면서 한류에 대한 심리가 조정되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섯째, 한-중 문화갈등은 양국 간 문제의 소재가 어디에 있는지 분명하게 설정할 수 있게 하는 '지목 효과'가 있다고 판단된다. 문제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상황보다는 문제가 노출됨으로써 그에 대한 관리를 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점이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동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문제가 노출된 이상, 한국 사회는 점진적 문제 해결을 통해 더욱 성숙한 의식을 갖는 사회로 변화할 수 있으리라 기대할 수 있다. 한-중 문화갈등을 특정한 과정으로 파악할 경우 한국 사회는 다양한 논쟁과 토론을 통해 이 문제를 다루는 출구를 모색함으로써 내부의 다양한 이견을 조정하면서 성숙한 의식을 갖는 방향으로 성장해 가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이를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해 볼 수 있다.

6. 맺음말: 몇 가지 제언

한-중 문화갈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궁극적으로는 건강한 양국 관계를

만들어나가기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은 물론이다. 이를 위해 몇 가지 측면에서의 제언을 통해 시론적 논의를 마무리하고자 한다.

첫째, 한-중 문화갈등은 제도와 이념, 관습, 정서의 요인이 교착된 문제로서 접근해야 한다. 이들은 모두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한 노력을 요구하는 요인인데, 그나마 제도적 차원에서는 대응 방안을 마련해 볼 수도 있다. 예컨대 한-중 문화갈등의 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설치하는 것이다. 한-중 문화 관련 대응 체계를 상시로 마련하여 외교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공동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일례로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KOFICE), 해외문화홍보원, 한국콘텐츠진흥원 등은 이런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적합한 기관으로 판단된다. 이념의 측면에서는 상호 국가 이념을 구성하고 있는 역사와 현상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이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정서적으로는 문화콘텐츠의 접근 면을 확대함으로써 상호 정서의 교감을 지속해나갈 필요가 있다. 이러한 노력이 거듭된다면, 제도-이념-관습-정서로 복합 연쇄된 문제가 점진적으로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한-중 문화갈등은 다자적 국제관계의 맥락 속에 놓여 있다. 따라서 다자적 관계의 맥락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 한-중, 한-일, 중-미, 중-일, 한-대만, 미-대만, 남북관계 등이 그것이다. 특히 홍콩, 대만에 대한 우리의 인식과 선택은 중국에 대한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 이들을 적절한 지렛대로 삼을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30년 전 한-중 수교 당시를 돌이켜보면, 양국은 상호 이익이 극대화되는 지점에서 이를 성사시켰다. 즉 한국에게는 북방정책의 가시화가 필요했고, 중국에는 천안문사태 이후 개혁개방을 지속하기 위한 외국 자본의 투자가 절실했다. 이러한 상황을 볼 때 한-중 양국의 상호 이익이 극대화되는 지점을 지속해서 발굴하는 노력도 필수적이다.

셋째, 중국을 포함한 중화권에 관한 연구와 교육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 중국의 좌경화에 대한 이해는 물론, '10년 이후'의 중국을 예측하고 설명할 수 있는 연구 조사가 필요하다. 또한, 중국을 단순한 '대상'에서 '관계'로 인식하

고 간주하는 관점이 긴급하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한-중 관계는 다양한 다자적 맥락 속에서 구성되는데, 예컨대 오늘날 대학(원) 교육과정에서 한-중 관계론, 중-미 관계론, 중-일 관계론 등의 교과를 설치하고 이에 대한 교육을 정밀하게 수행하고 있는 곳이 얼마나 되는지 회의적이다. 중국과 미국, 일본 관계의 전문가들이 협업을 통해서만 이러한 문제를 직시하고 전체적인 판도를 설명해 낼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세계시민교육 또는 글로벌라이제이션 관련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한-중 문화갈등은 단지 한국과 중국 '사이'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내부의 문제로 되돌아오기도 한다. 그동안 추상적인 구호에 그쳤던 세계시민교육, 글로벌라이제이션 교육을 재점검하고 초중등 교육은 물론 대학교육에서도 이를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물론 시민사회의 교육 또한 중요한 지점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우리 내부의 중국에 대해서도 재고해보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특히 '조선족'으로 대상화되는 우리 내부의 중국에 대한 혐오는 상당 부분 중국에 대한 반감으로 이어진다. 우리 사회의 혐오 문제로 연결될 수 있는 이러한 문제를 걷어내고 보편적 '환대'(hospitality)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교육의 확대가 필요하다.

다섯째, 언론과 지식인의 적극적 역할이 확대되어야 한다. 특히 한-중 문화갈등의 발생 및 전개 과정에서 언론의 미확인 사실 보도, 왜곡 보도, 선정 보도 등은 막대한 영향을 미쳐왔다.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에 기반을 둔 정보와 상호이해의 관점을 제공하는데 언론과 지식인이 역할을 다해야 한다. 특히 다양한 문화교류가 봉쇄되고 있는 상황에서 양국 언론인, 지식인을 포함하는 전문가들의 회의체 가동은 매우 중요한 현실적인 교류 방안이 될 수 있다.

여섯째, 2022년은 한-중 수교 30주년이 되는 해이다. 이를 새로운 계기로 삼아 한-중 관계 개선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다행스럽게도 양국 문화부는 2021~2022년 '한중문화교류의 해'를 설정하고 다양한 교류를 추진하고 있다. 다만 최근 상황(중국 내부의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대한 통제 강화 등)을 살펴

볼 때, 대중문화 분야의 교류가 효과적으로 전개될 수 있을지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그럼에도 거듭되는 노력을 통해 양국 문화교류의 끈을 이어가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2022년 출범하게 될 한국의 새 정부는 대중국 관계를 설정하면서 이러한 문제들을 충분히 인식하고 그에 따라 정책 방향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參考文獻

- 김주연·안경모, 「중국에서의 한류콘텐츠 선호가 한국상품 구매, 한국방문 및 한글 학습 의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2권 5호, 2012.
- 문화체육관광부, 「2016 콘텐츠산업 통계조사」, 한국콘텐츠진흥원, 2016.
- 문화체육관광부, 「2019 콘텐츠산업 통계조사」, 한국콘텐츠진흥원, 2019.
- 임대근, 「한-중 문화갈등의 발생구조와 대응 방안」, 『한중사회과학연구』 제10권 3호, 2012.
- 전기정, 「한중 웹소설의 특징 및 시장 현황 비교 분석」, 『열린정신인문학연구』, 원광대 인문학연구소, 2020.
- 정재정, 『주제와 쟁점으로 읽는 20세기 한일관계사』, 역사비평사, 2014.
- 황낙건, 「중국 내 K-DRAMA 특성이 한류 문화콘텐츠 만족과 국가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제8권 1호, 2014.

Abstract

A Study on Cultural Conflicts between Korea and China

Great Root Woods

In the 30 years since the establishment of diplomatic ties between Korea and China, various cases of cultural conflict have occurred. The cultural conflict between Korea and China has gone through a honeymoon period(1992~2002), an intermittent period(2002~2016), a cooling period (2016~2020), and reached the frequent period(2020~present). The Northeast Project(2002) and The Administrative Order that Bans Korean Culture(2016) are two inflection points that constitute the cultural conflicts. The cultural conflicts between Korea and China arise centered on the issues of history and national culture as the governments of both countries and the private sector function as the cause-providers. Recently, pop culture contents themselves are acting as the epicenter of conflict. These cultural conflicts tend to be reinforced by various causes such as nationalist ideology and international relations. Therefore, the approaches also need to be carried out at the level of historical, structural, economic, international relations, and cultural contents. It is true that there are some 'positive' signals despite cultural conflicts, but institutional, international, educational, social and diplomatic efforts are needed to create a healthy Korea-China relationship while managing them effectively.

Key words : Korea-China Diplomatic Relations, Cultural Conflict, The Northeast Project, The Administrative Order that Bans Korean Culture, Korean Wave

투 고 일 : 2022. 1. 10. / 심 사 일 : 2022. 1. 15. ~ 2022. 2. 15. / 게재확정일 : 2022. 2. 20.

